**아모레퍼시픽 '젠티스트 투엑스' 치약 출시**

아모레퍼시픽이 덴탈케어 프리미엄 브랜드 '젠티스트'를 론칭하고 첫 제품으로 기능성 치약 '젠티스트 투엑스'를 내놓았다. 주성분인 녹차추출액이 잇몸의 콜라겐 생성을 2배 촉진시킨다. 콜라겐이 구강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줘 건강하고 개운한 사용감을 준다. 조밀 기포가 잇몸 깊숙이 영양성분을 전달해 구강복합질환의 예방 효과도 있다. 허벌민트향과 석류민트향 등 2종으로 구성했다.




## 현대차, 전력 직접 생산 나선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대규모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사진제공 | 현대차

# "울산에 LNG 발전소 건설…전력 70% 조달"

**전기차 공장은 '전기먹는 하마'**
**한전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공급**
**온실가스 감축 실적 30%이상 높아**
**발전 소음·대기오염 등 최소화 예정**

현대차가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인 울산공장에 대규모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3일 '울산공장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울산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울산 공장은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생산되는 곳이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은 일반 자동차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됐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수요·공급의 안정성 제고와 경제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열병합 발전소를 직접 짓기로 결정했다.

**●조 단위 투자, 2025년 준공 목표**

현대차가 대규모 자가 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 봐도 완성차 업계가 전력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직접 발전소를 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력소요량은 연간 약 129만MWh이며, 스팀소요량은 연간 약 71만 톤이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 및 15대의 보일러를 통해 스팀을 생산해 공장 내 전력 및 열공급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해 현재 공급받는 전력량의 약 70% 이상을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금은 조 단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공사 기간은 2022~2025년이다.

울산공장 LNG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은 184MW(비상용 21.6MW 포함)다. 발전과 난방을 동시에 제공하는 열병합 시스템으로 시간당 100톤 규모의 스팀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스팀 양의 약 59%다.

현대차는 발전소 설립을 통해 전력 및 스팀의 생산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면 에너지 절감효과는 전력과 스팀을 각각 생산할 때와 비교해 20%,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30%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6일자 울산 북구청 고시공고 안내문을 통해 "최근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분산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송전·발전소를 축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춰 기존 전력 및 스팀 생산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LNG연료 적용 및 유틸리티 수용, 공급의 안정성 제고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가용 열병합 발전 설비(발전용량은 162.4MW, 스팀생산 100t/h)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발생 오·폐수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오·폐수처리시설 및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와 연계처리, 발전시설 소음 차단 등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후 울산공장 내 1만7000여m² 부지에 가스터빈 2기, 증기터빈 1기 등을 갖춘 발전소 공사를 연내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뉴저지주에 온돌 아파트"…대우건설-중흥그룹, 美 부동산 개발사업 박차

**인수합병 후 양사 시너지 본격화**
**캐럴턴시 등과 주거개발사업 서명**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지속 성장"**

중흥그룹과 손잡은 대우건설이 미국 건설시장에 21년 만에 재진출한다. 대우건설이 가진 해외시장에서의 높은 인지도에 중흥그룹의 강점인 개발 능력을 더해 미국 건설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한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시너지 효과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행보와 맞물리며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이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001년 뉴욕 트럼프타워 준공 이후 21년 만이다.

대우건설은 "미국을 방문 중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대우건설 현지 출장단이 3일 텍사스주 루이스빌시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5일 텍사스주 캐럴턴시, 6일에는 뉴저지주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서명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중흥그룹이 6일 뉴저지주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 서명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 대우건설

캐럴턴시는 댈러스 인근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대우건설은 이곳에서 48만6000m² 규모의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 부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주는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성이 가장 뛰어나 미래 성장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며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성장가치를 가진 곳"이라고 밝혔다.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뉴저지 주거개발사업은 20층 370가구 규모로 이미 주택개발 인허가를 승인받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 미국 현지법인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뉴저지·뉴욕 맨해튼 지역이 4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해당 사업지와 비슷한 유형의 임대아파트 마감 수준이 국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식 온돌과 국내 마감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미국 부동산 시장 진출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중흥그룹과 함께 그룹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며 "대우건설이 가진 토목, 플랜트 분야 외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추진해 글로벌 건설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 에버랜드, 300만 송이 '장미축제' 13일 개막

에버랜드는 13일부터 6월12일까지 '장미축제'를 진행한다. 2만m² 규모의 장미원(사진)에서 13일부터 에버랜드가 자체개발한 24종을 포함해 720종 300여만 송이의 장미를 만날 수 있다. 가까이서 장미향을 맡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로즈워크도 만들었다. 보타니컬 아트, 플라워 테마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에버랜드의 보타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플로레비다' 팝업 체험존도 축제 기간 장미원에서 운영한다. '스프링 온 스푼' 푸드 페스티벌에서는 15일까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지역 특선 메뉴 33종을 맛볼 수 있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세븐틴 엔하이픈 등 하이브 소속 아이돌 그룹의 뮤직라이팅쇼가 20일부터 매월 릴레이로 펼쳐진다.

##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구미' 출시




고려은단이 '비타민C 1000 구미'(사진)를 출시하며 비타민C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하루 한 팩으로 비타민C 1000mg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세계적인 비타민 원료 전문기업 DSM사의 원료를 사용했다. 오렌지맛 구미 형태로 간식으로 이용하기에 좋다. 패키지는 지퍼백을 적용해 섭취 및 휴대 또한 간편하다. 고려은단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공식몰에서 구매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퇴행성관절염, 중기 지나면 수술 불가피 '카티스템'으로 인공관절 수술 늦추세요

무릎 연골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닳아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간단한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가 지난 증상이 진행된다면 통증 완화는 물론 관절의 운동범위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거나 연령이 젊은 환자라면 카티스템(줄기세포 연골재생술)으로 인공관절 수술시기를 늦출 수 있다. 카티스템은 탯줄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연골 주변 줄기세포를 끌어와 재생력을 높이기 때문에 고령층에게도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연골 손상 부위에 미세한 홀을 여러 개 뚫고, 홀 안에 줄기세포를 채워 넣은 후 넓게 도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줄기세포가 연골조직으로 자라나면서 연골재생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1년 이내에 무릎 골연골 손상 부위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고 그저 방치하고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오랫동안 방치하여 뼈 손실까지 진행된 말기 환자들은 카티스템 수술 적용이 어려워 인공관절 삽입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고, 무릎에 갑자기 힘이 풀리는 등 이상 증세가 지속된다면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속성상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의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의정부 연세고든병원 **강진석** 대표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